

어린이책 100년...삽화의 역사 속으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우리 그림책 이야기

정병규 지음

100년 전만 해도 책은 특별한 이들의 소유물이었다. 당연히 어린이책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었다. 방정환에 의해 '어린이'라는 어휘와 지위가 통용되면서 어린이 인쇄물이 비로소 제작됐다. 그러나 그림책이나 삽화 인쇄물의 체계적인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소년한반도'는 어린이책 최초 자료를 할 수 있다. 어린이 잡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1906년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모두 6권이 발행됐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소년 잡지'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다.

어린이책에서 시각적 요소는 육당 최남선이 발간한 '아이들보이' (1913년 9월-1914년 8월)에서 등장했다. 제호가 말하듯 "아이들과 '보이다'라는 보조동사에서 '보이'를 따와 아이들이 보는 잡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책은 국판 크기의 40여 쪽 분량이다. '책거죽' 그림을 유명한 화가에게 맡긴 점이 특징이었다. 백마



를 탄 장수 아래에는 호랑이 얼굴이 있었고 위쪽에는 '아이들보이' 활자가 사각형 모양으로 씌어 있었다. 본문 그림은 "목각으로 새겨서 삽화의 기능을 하게 했고 패턴화된 문양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활자들과 조화를" 이룬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그림책 역사를 정리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어린이 서점 '동화나라' 주인장이자 그림책 관련 글을 쓰는 정병규가 저자다. 자칭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그는 지금까지 '우리 그림책 작가를 만나다'를 펴냈다. 특히 동내책방을 연대 모임인 전국동내책방네트워크 회장으로 일하며 동내책방이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저자가 이번 책을 펴낸 것은 그림책에 대한 '제자리 찾기' 일환과 무관치 않다. "출판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에서 그림책은 마치 집은 존재하지만 주소가 없는 무적자 형편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제자리를 못 찾는 그림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와 지표, 평론의 공간이 시작되어야 한다."

저자는 어린이 대상 순수 아동잡지로 방정환이 중심이 돼 만든 '어린이'를 꼽는다. 개벽사에서 발행한 '어린이'는 1923년 창간됐지만 1935년 3월 창간된다. 이후 1948년 복간돼 1949년 12월호까지 통권 137호가 나왔다. 제호의 서체가 바뀌었고 삽화에도 사진이나 만화, 컷 등이 등장했다. 매호 평균 70쪽 분량이 발행된 데다 삽화, 활자 배치, 구성 등에 변화를 시도한 점이 눈에 띈다.

만화가들의 어린이책에 삽화를 그린 건 1920년대 중반부터다. 안석주의 '씨동이의 말타기'가 1925년에 등장했으며, 1927년에는 박천석이 '아희 생활'에 '북동군의 탐험'을 연재했다.

'어린이' 이후 1945년 무렵까지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다. 40여 종 이상 잡지가 창간되거나 폐간됐다. 이 가운데 '우리들 노래'는 그림책 근원이라 해도 될 만큼 의미가 있다. 조선아동문화협회 공모 당선 동요들로 꾸러진 선집으로 모두 10편이 수록됐다. 각 편마다 그림이 그려진 '시 그림책'인데 특히 '우리 닭'은 암탉과 수탉, 병아리가 모이를 먹고 있는 장면을 담은 점이 이색적이다.

1949년에는 '어린이나라'와 '진달래'가 창간됐으며 1950년대부터는 '진달래'가 아동구락부로 바뀌어 출간됐다.

저자는 특히 흥성전에 대해 가장 오랜 현역으로 활동한 기념비적 작가로 명한다. 흥 작가는 1964년 '새소년' 8월호부터 2017년 타계할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 그 가운데 '할아버지 시계'는 마지막 흔을 붙여넣은 작품이다.



1960-70년대는 오늘날의 표지디자인처럼 한 화가가 정밀하게 그림을 그린 양상이 시도됐다. 50년 전 일이지만 "이 같은 수공업 방식의 명장면들을 한때의 경향으로 물어두기에는" 성과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삽화 역사는 어린이책 역사와 궤를 같이한

다. 그렇게 어린이책은 100여 년 가까운 시간 문학과 벗하며 성장을 거듭해왔다. 아울러 책에는 분야별 그림책을 비롯해 작업실에서 만난 이만희, 소윤경, 고정순 작가 등 인터뷰도 실려 있어 그림책을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행복한 아침독서·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1 @이우경의 작품
- 2 조선아동문화협회 공모 동요를 대상으로 발간된 '우리들 노래'와 본문에 실린 '우리 닭'
- 3 아동잡지 황금시대를 열었던 '어린이'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시장을 바꾸다

유건식 지음

'오징어게임'에 이어 '지옥'이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이들 작품은 한국 드라마의 세계화 가능성, 나아가 K콘텐츠의 우수성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다.

이제 미디어와 콘텐츠는 넷플릭스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광고가 주 수익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구독경제 모델로 변화한 것이다.

드라마 산업에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넷플릭스를 다각도로 분석한 책이 나왔다.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이 펴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시장을 바꾸다'는 넷플릭스가 국내에 미친 영향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한류의 주축인 한국 드라마 제작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저자는 '한국 방송 콘텐츠의 미래를 열다', '미디어 구독 모델' 등을 펴냈으며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와 언론진흥재단 미디어 미래포럼 위원을 역임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책에는 넷플릭스 회사에 대한 소개,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드라마를 유통하고 드라마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다룬다. 아울러 넷플릭스 드라마와 국내 드라마 제작의 차별점을 제시하고 제작사와 정부의 대응방안도 제안한다.

정경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은 추천사에서 "그는 2007년 KBS의 드라마 BM 1호로 선발되어 드라마 기획과 제작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연구와 저술에 임하고 있다. 드라마 '굿닥터'를 미국 ABC방송에서 리메이크한 것은 그의 끈질긴 노력과 성실한 네트워크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한다.



〈한울·2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화려한 화학의 시대

프랭크 A. 폰 히펠, 이덕환 옮김

화학적 성공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독가스 치클론이다. 독일이 개발한 이 독가스는 사이안산 계열인 치클론 B로, 이(II)소듐 뿐 아니라 이의 알짜기도 없애는 강력한 해충제다. 문제는 치클론은 제2차 대전 중에 유대인을 학살하는 가스실의 가스로 악용됐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화학제품들이 있다. 화학은 현대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분야 가운데 하나다. 아플 때 먹는 의약품에서부터 화장실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닦는 청소 제품은 모두 화학과 관련이 있다. 인류를 배고픔과 질병에서 해방시킨 화학의 시대를 연 위대한 화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노던에리조나 대학교 환경독성학과 교수 프랭크 A. 폰 히펠이 펴낸 '화려한 화학의 시대'는 화학자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해충과의 불편한 동거와 그것들을 박멸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현대사회를 변화시켰는지 주목한다. 책은 농약을 사용해 기근을 극복해야 한다는 중요한 임무를 일깨워준 1840년대 감자 잎마름병 비극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또한 수많은 인명피해를 양산한 아일랜드의 감자 대기근에서부터 기적의 제품이라는 찬사를 받아 사용된 DDT를 소개한다. 아울러 이것의 위험을 밝힌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까지의 기간을 집중 들여다본다.

과학적 발견의 전율과 그것이 이야기하는 모순적이고 복잡한 결과는 흥미와 더불어 성찰을 요구한다. 한편으로 책을 작품을 보호해줄 수 있는 물질의 발명, 해충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된 화학물질의 개발 과정, 전쟁용 화학무기를 어떻게 농약으로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까지·2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페라 인문학

박경준 지음

오페라는 웅대하고 귀중한 예술이다. 하지만 여러 예술의 형태가 결합한 오페라를 제대로 감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고 길고 또 지루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선입견을 깨고 오페라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책이 출간됐다.

바리톤 박경준이 최근 펴낸 '오페라 인문학'은 '피가로의 결혼'부터 '투란도트'까지 명작 오페라 11편의 시대 배경과 역사, 문화, 작곡가들의 사상, 음악사의 조류 등 오페라의 모든 핵심을 담았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클래식 매거진 '박경준의 스테이지'를 발행하고 있는 저자는 작품의 등장인물 소개와 스토리, 아리아 감상법을 인문학적 시각으로 쉽게 풀어냈다.

오페라의 원작이 되는 희극의 탄생 배경, 신화 이야기 등 저자의 해설을 따라가다 보면, 오페라의 역사와 더불어 세계사, 문화사까지 공부할 수 있다. '피가로의 결혼'을 통해 프랑스혁명을, '탄호이저'에서는 드레스덴혁명을, '카르멘'을 통해 팜파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각 작품 속 주인공이 표현하는 흥미진진한 사랑 이야기, 무대 배경 이야기, 작곡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은 또 다른 호기심을 자극한다.

저자는 "오페라의 꽃은 바로 '아리아'라고 말하며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카르멘'의 '하비네라', '돈 조반니'의 '카탈로그의 노래', '토스카'의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도 소개한다. 아울러 책의 각 장 끝에 서곡 및 주요 아리아만 따로 분석했으며 배우는 어떤 심정으로 노래해야 하며 정중은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준다.



〈마음의숲·2만7000원〉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